



제281회 임시회
시정질문 · 답변

시정질문과 답변 내용
(일괄질문 · 일괄답변)입니다.



민 경 배 의원

“대전효문화타운 조성 및 발전적 운영방안을 촉구합니다”

“‘꿀잼도시’대전을 이끌 보물산 프로젝트의
차질 없는 추진을 촉구합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위한 종합대책이 필요합니다”

국민의힘 중구 제3선거구



민 경 배 의원

● 민경배 의원

중구 제3선거구 문화1·2동, 유천1·2동, 산성동을 지역구로 하는 국민의힘 민경배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조원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위해 혁신성장을 이끌어 나가고 계신 이장우 시장님!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의 현안사항에 대해 여기 모이신 분들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대전 효문화시설의 발전적 운영방안 마련을 통해 시민의 시각에서 전국 유일의 효문화타운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고 대전광역시의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한국효문화진흥원을 비롯해 뿌리공원, 한국족보박물관, 효문화마을관리원, 무수동 유희당, 이사동 유교전통의례관 등 다양한 효문화시설들이 집적되어 있는 이른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효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효문화시설들의 운영주체를 살펴보면 한국효문화진흥원은 대전시에서, 뿌리공원 등을 관리하는 효문화마을관리원은 중구에서 운영하는 형태로 분절되어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효문화시설들이 이렇게 이원적으로 관리되고 운영되다 보니 상호 간의 정체성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시설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도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가 각계각층으로부터 지적되어 오고 있습니다.



시민의 의견을 영상을 통해 들어보시겠습니다.

(10시 06분 영상자료 개시)

(10시 07분 영상자료 종료)

이에 따라 민간을 중심으로 효문화시설의 통합 관리·운영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올해 6월 확대간부회의에서 중구의 한국효문화진흥원과 효문화마을관리원의 통합운영을 제안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중구에서는 시장님의 제안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에 기반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상 통합운영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중구의 반대에 직면해 대전시의 통합운영 방안 논의 추진이 중단된다면 효문화도시 대전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시장님, 저는 이 시점이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와 구가 협력하여 발전적인 효문화 인프라를 구축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시장님과 구청장님의 전향적인 협치 노력과 함께 효문화 발전 협의체 또는 효문화시설 통합추진 TF를 구성하여 대전시의 효문화시설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련의 효문화시설의 통합운영 제안에 대한 논의를 지켜보며 효문화 자산의 가치와 발전적 운영에 대해서는 시와 구 모두가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영 및 추진방식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입장차이의 핵심에 대전시민과 효문화 자산에 관심을 갖고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시장님!

시민의 시설은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전에 있는 효문화시설에 대한 인식과 발전방안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공청회, 토론회 등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의 견해와 추진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효문화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독보적인 효문화 사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효문화와 타 사업과의 연계, 효교육 강화 등을 통해 확장된 효문화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숙박형 체험관광시설 도입으로 체류형 효문화타운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 드립니다.

(10시 10분 영상자료 개시)

(10시 11분 영상자료 종료)

보시는 바와 같이 체류형 효문화타운에 대한 필요성은 시민들에게서도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시장님께서도 효문화시설의 통합운영과 더불어 유스호스텔 건립을 제안하신 바 있는데 체류형 효문화타운 조성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중구지역에 밀집해있는 효문화시설들은 다양한 효문화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독특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들 시설 간 연계성을 강화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효문화도시 대전이라는 도시브랜드를 확고히 다질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효문화도시 대전의 도시브랜드 이미지가 더 확장되고 그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시장님의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꼴참도시 대전을 이끌 보물산 프로젝트에 관한 질문입니다.

대전시민의 20년 숙원사업인 보물산 프로젝트는 민선 4기부터 민선 7기에 이르기까지 보문산 뉴그린파크 프로젝트, 보문산 종합관광개발, 제6차 대전권 관광개발계획, 보문산 도시여행 인프라 조성사업 등 다양한 이름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지난 민선시장님들의 사업 발표가 있을 때마다 우리 대전시민들께서는 대전의 지역 간 균형발전과 새로운 도약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본 사업에 대한 큰 희망과 기대를 걸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희망과 기대와는 달리 매년 수익성과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번번히 사업이 중단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우리 시민들의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민선 8기 들어 시장님께서서는 보문산 관광개발에 남다른 의지를 보여주셨고, 특히나 지난 2023년 5월 보물산 프로젝트에 대한 시정브리핑에서 20년간 답보 상태였던 보문산 관광개발의 종지부를 찍고 보문산을 체류형 관광단지로 탈바꿈할 계획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또한 기존 시설과 훼손부지를 충분히 활용해 보문산의 양호한 녹지공간은 보존하고 사업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훼손된 부지는 복원을 병행해 환경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시민 여러분께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저 역시 보물산 프로젝트는 보문산권역을 개발하는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전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끌어 시민의 복리와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대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 동력을 제공하는 일이라는 평소의 소신을 가지고 있었기에 줄곧 보물산 프로젝트를 지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 지지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의 브리핑 이후 1년이 훌쩍 넘는 현재 까지도 뚜렷한 추진실적이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추진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망타워 및 케이블카의 경우 2023년 7월 민간제안 공모를 공고하였으나 유찰되었고, 같은 해 11월 민간제안 2차 공모 수정공고를 하여 계룡건설이 케이블카 조성사업에 대한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경제성 등에 대한 이견으로 대전시와 계룡건설 간 협약이 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님께서 전망타워를 대전시 재정사업으로 건립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하였으나 막대한 재정사업비가 투입된다는 점에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워터파크와 숙박시설 조성 관련해서는 금년 6월에 사업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용역을 완료한 것 외에 별다른 진행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시의 향후 보물산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확인해 보니 이달 중 케이블카 조성 관련 우선협상자와 실무협상을 마무리하고 전망타워는 2025년 상반기까지 타당성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워터파크 및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까지 사업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지금까지의 여러 문제제기와 변수에 부딪히면 또 다시 지연되거나 중단될 것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

시장님은 강력한 사업 추진력으로 0시 축제를 대전을 대표하는 글로벌축제로 성공리에 개최하였고 무려 28년의 해묵은 숙원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을 10월 중 착공단계까지 이끌어 내셨습니다.

이와 같이 본 의원은 보물산 프로젝트의 성공이 절박한 상황에서 시장님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사업의 가시적인 추진성과를 시민 여러분께 보여주기를 희망합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현재 담보상태에 있는 보물산 프로젝트를 정상화하기 위한 각 사업별로 어떠한 해법을 고려하고 있으신지요?



두 번째, 많은 시민들께서 보물산 프로젝트의 가시적인 추진성과가 언제쯤 나올지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는 점에서 점진적인 세부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요?
각 세부사업별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학교폭력 문제는 교육 이슈를 넘어 중요한 사회적 어젠다가 되었습니다.
학교폭력을 소재로 한 드라마 방영과 고위공직자 자녀, 연예인의 학폭 관련 의혹 등 학교폭력에 대한 민감한 반응이 높아지면서 신고건수 역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발표한 2023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중·고 전체 피해응답률은 1.9%로 전년도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고 코로나 여파로 줄어들었던 학교폭력은 2020년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전의 학교폭력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전의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1.4%로 전국 대비 0.5% 포인트 낮았고 10년 연속 전국 대비 낮다는 사항을 공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자료를 분석해보니 전국 대비 피해응답률이 낮은 건 사실이지만 2020년 코로나 이후 초·중·고 피해응답률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2023년도 응답률이 2.8%로 지난 10년 중 최고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교육감님!

대전광역시 학생들은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대전시 학생, 학부모들은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현황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향후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결과 발표시에는 연도별 피해응답률 추이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데이터를 공개해주실 것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저는 학교폭력 관련 민원 하나를 받았습니다.

이 자료는 교육감님 앞으로 보낸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어 아마 교육감님께서도 확인해 보셨을 겁니다.

편지를 보낸 분은 2022년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아버지로 피해학생은 2년 전 학교에서 동료학생에게 흉기로 찔려 수술받은 후 현재까지도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학생의 아버지는 이 사건이 학교 내에서 발생했고 더욱이 도검 소지 허가가 필요한 품목으로 인한 폭력임에도 학교와 관계자들은 사건을 축소했고 피해학생의 고통을 외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실상 매우 심각한 사안이었음에도 어찌된 일인지 가해학생에게 경미한 처분이 내려졌고, 이후 행정심판에서 처벌이 강화되었지만 가해학생 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해학생의 아버지는 최근 소송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 결과를 알기 위해 교육청에 문의했지만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들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지난주 피해학생 아버지는 저를 직접 찾아와 아들의 학교폭력 사안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자료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0시 19분 영상자료 개시)

(10시 21분 영상자료 종료)

교육감님!

피해학생 아버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대전시교육청 학교폭력 사안 처리과정에 큰 문제가 있었다 생각되는데, 교육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안의 처리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피해학생의 마음 회복을 위한 대전시교육청의 지원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에서도 위 사안에서 드러난 문제점 등을 인식하고 2024년 1학기부터 실시하고 있는



학교폭력 제도에서는 피해학생 중심으로 보호조치를 강화했습니다.

여기에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즉시분리 기간을 3일에서 7일로 연장하고, 학교장이 할 수 있는 가해학생 대상 긴급조치에 학급 교체를 추가하였으며, 가해학생이 제기한 행정심판·소송에도 피해학생 의견청취를 의무화했습니다.

저 역시 학교폭력 전반에 있어 무엇보다 피해학생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철저히 보호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올해부터 시행 중인 피해학생 보호조치 정책의 1학기 시행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향후 대전시교육청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 강화와 함께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제로센터에서 통합 지원을 하고, 학교폭력 사안 조사는 전담 조사관이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교육감님!

대전에는 동·서부교육지원청 학생생활지원센터에 학교폭력제로센터가 구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센터의 전담인력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습니다.

현재 학교폭력제로센터의 전담인력은 충분한지, 담당자의 업무과중은 없는지를 포함해 학교폭력제로센터의 운영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사 업무를 경감하고 학교폭력 사안의 전문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출발한 전담 조사관 운영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은 가해학생도, 피해학생에게도 평생을 따라다니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의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 예방대책과 공정한 사안처리를 교육감님께 요청 드립니다.

시장님, 교육감님!

민선 8기, 9대 의회 후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질문드린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의 현안이 시민의 삶에 의미 있는 정책으로 실현되길 바라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우선 존경하는 우리 민경배 의원님께서 대전효문화타운 조성 및 발전적 운영방안과 보물산 프로젝트의 차질 없는 사업추진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동안 민경배 의원님의 대전시정에 대한 많은 응원과 조언 덕분에 대전시정은 지난 2년간 괄목할 만한 성취를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광역시는 도시브랜드 평판도에서 2021년도 29위였습니다만 금년 8월에 서울과 부산을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또 광역자치단체 브랜드 평판도에서도 지난 연속 서울과 부산을 제치면서 6, 7, 8월 1위에 올랐습니다.

2022년도 10위에 랭크됐다고 보면 상당히 괄목할 만한 성취였다고 생각합니다.

삶의 만족도도 2021년도 11위에서 2024년 2월부터 5월까지 연속 4개월 1위에 올랐습니다. 상장기업 수는 민선 6기의 11개를 이미 뛰어넘어서 12개, 민선 7기의 14개를 거의 육박하는 그런 성취로 지금 60개에 도달했습니다.

자살사망률은 전국 17개 시·도 중에 불명예스럽게 4위였었고 특·광역시 중에 1위였습니다.

현재는 전국 15위, 특·광역시 중에 하나 빼고 6위에 랭크되면서 자살사망률도 최하위원에 머무는 그런 좋은 결과로 시정이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그동안 많은 응원과 조언 덕분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좀 전에 말씀 주신 효문화 활성화와 보문산 관광개발도 아주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시민들이 열심히 일하고 또 주말이든 여가선용을 위해서 정말 도시 인근에, 멀리 안 가도 정말 많은 가족들과 함께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들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뿌리공원 일대를 중심으로 효문화시설의 통합운영이나 추진계획 또 효문화시설의 체류형 관광자원화 필요성 및 유스호스텔 설치계획과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우선 중구 뿌리공원 일대를 중심으로 효문화시설의 집합단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주체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한국효문화진흥원은 우리 시가 출연한 기관이고 효문화마을관리원은 중구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복예산이나 그리고 경쟁력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문산 관광단지의 전체 조성이 완료되면 오월드나 뿌리공원의 볼거리가 늘어나고 관광객이 체류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효문화진흥원과 효테마 뿌리공원 등을 통합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합논의를 진전시키려면 중구와의 여러 관계가 있습니다만, 그동안 수차례 통합 논의를 위해서 진행 후에 중구에 이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했습니다만 간접적인, 부정적인 의견은 들었습니다만 공식적인 답변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시는 효문화진흥원과 효문화마을관리원 등을 시 차원에서 통합관리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만약 중구가 통합관리하겠다고 해도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중구의 재정,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면 중구에 상당히 재정적인 큰 부담이 오리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시가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또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현재 효문화마을관리원에 숙박시설이 좀 있습니다만 워낙 낡고 그래서 새로 신축하는 것이 괜찮고 또 유스호스텔, 청소년이나 가족 단위가 함께 거기에 와서 숙박할 수 있어야 저희는 좋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 문제는 전적으로 중구의 선택에 달려 있다.

중구가 원하지 않으면 할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구에 유리한 사업인데 중구가 원치 않으면 굳이 시가 애걸복걸해 가면서 할 필요성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중구하고 잘 논의를 더 하는 데에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전체 효문화시설 관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시 재편해서 경쟁력 있는 시설로 만드는 것, 잘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케이블카, 전망타워, 워터파크, 숙박시설 조성 관련한 사업추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보문산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보문산은 지난 많은 시장들의 공약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제대로 진척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고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는 제가 정책적으로 발표를 하면 완성할 때까지 끝까지 책임을 지고 밀고 가는 그런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보문산 문제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또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역대 시장님들도 많은 공약을 했고, 그렇지만 제대로 마무리를 안 하고 다들 떠나셨기 때문에 저라도 힘차게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문산 프로젝트는 첫째는 케이블카 포함한, 요즘은 곤돌라라고 표현합니다만.

곤돌라 그리고 전망타워, 좀 전에 말씀하신 뿌리공원 문제 그리고 저희가 지금 보문산 뒤편에 휴양림 조성을 시작한 목달동 휴양림 그리고 치유의숲 그리고 호동에 40만 평 가까이 조성하는 수목원 그리고 동물원과 식물원을 리뉴얼하는 사업 그리고 또 보문산과 함께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글스파크 야구장 신축 문제 그리고 인근에 보문산, 동구 쪽에 있습니다만 이사동에 한옥마을 만드는 문제까지 우리 시가 지금 심혈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5월에 발표한 바와 같이 체류형 관광단지로 조성하고자 2개의 패키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많이 나열한 사업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지금 의원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케이블카 그리고 전망타워, 또 하나는 워터파크와 숙박시설입니다.

숙박시설은 펜션이나 글램핑장도 함께 결합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케이블카와 전망타워 조성사업을 하나의 패키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워터파크와 숙박시설을 2단계로, 1단계는 케이블카와 전망타워를 먼저 패키지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 7월에 말씀하신 것처럼 민자공모를 추진했고요.

또 일부 기업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달아서 2차 공모를 통해 금년도 1월에 케이블카에 대한 우선협상자로 계룡건설산업 컨소시엄을 선정했습니다만 현재 계룡건설의 입장은, 현재 PF를 일으키는 데 이자율이 거의 한 8% 가까이 된답니다.

지금 워낙 PF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이자를 많이 냈을 경우 케이블카를 운영했을 때 상당히 재정적인 부담이 있다고 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도시공사가 만약에 직접 했을 경우는 아마 한 3% 이내의 이자율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최종적으로 고민하고 있고요.

이달 초쯤에 조만간 최종 결정을 합니다.

지난번에 0시 축제 등 많은 사업들이 진행돼서 저희가 결정을 조금 미루어왔습니다만 이달 중으로 이에 대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또 지금 건설경기 불확실성 등 관련해서, 계룡건설산업이 건설을 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리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 것 같고요.

협상을 이달 중에 하여튼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의 협상 결렬에 대비해서 이미 우리 시는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 또 도시공사가 참여하는 방안을 사실상 완료해 뒀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만약에 협상이 결렬되면 즉시 재정사업과 도시공사 참여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임기 내에 보물산 프로젝트가 사실상 실질적으로 가시화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케이블카 민자공모 시 제안하지 않은 전망타워가 있습니다.

전망타워는 케이블카와의 연계를 위해서 이미 올 3월에 시 재정사업으로 추진을 결정했고 현재 대행을 맡고 있는 대전도시공사에서 입지, 규모 그리고 예산 규모 등의 결정을 위한 기본구상 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게 마무리되면 바로 대전 전망타워는 후속절차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학도시 대전을 상징할 수 있는 인공위성 모양의 기초를 기반한, 랜드마크화할 수 있도록 하고 대전 타워에 기획디자인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대전 타워 안에 지금 우리 지역의 대표 빅브랜드인 성심당 입점 등 다양한 각도로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저희가 협의를 해갈 생각입니다.

내년 5월까지 타당성 검토를 끝내고 2026년 6월까지 투자심사 및 기본설계, 설계까지 완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임기 내에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터파크와 숙박시설 사업은 또 다른 패키지인데 타당성 검토용역을 이미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민자를 유치하는 방안 그리고 대전도시공사가 오월드를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계획을 포함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하는 방안 그리고 정부의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를 활용하는 방안 등 세 가지를 가지고 마지막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 내에 인허가와 설계에 착수해서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중구청장께서 저한테 민자보다는 재정사업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사실상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협상이 결렬되면 신속하게 재정사업으로 해서 빠르게 진척할 계획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현재 케이블카는 한 3.5km에 정거장은 2개에서 3개, 요즘 기술력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정거장을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기둥도 소수 기둥으로 설치해서 정상까지 또 오월드까지 갈 계획입니다.

케빈은 한 60개 정도인데 케빈도 철저하게 과학기술도시의 위상에 맞게 기획디자인을 적용해서 명품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보물산 프로젝트 중에 목달동 휴양림은 이미 매입해서 휴양림 50만 평에다가 뒤쪽 구완동 쪽에 산림청에서 매입한 것을 우리가 이미 사용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완동과 목달동을 합하면 100만 평이 훨씬 넘기 때문에 이걸 시민들에게 아주 쾌적한 휴양림 조성을, 지금 이미 추진하고 있고 정상적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호동 수목원도 금년 하반기에 매입절차에 돌입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정상화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매입절차가 끝나면 바로 40만 평 이상의 자연형 수목원 조성을 할 계획이고요.

동물원·식물원은 도시공사에서 완전 에버랜드 수준의 새로운 개편을,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 결과가 나오는데 그 안에다가 워터파크를 현재 있는 걸 조금 강화할 것이냐, 그런데 요즘 워터파크 부분은 보니까 각 구청별로, 지역별로 지금 각 동네별로 튜브형 워터파크가 아주 굉장히 인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수요가 일부 근접성이 떨어져서 도시공사에 현재 있는 걸 추가 새로 개편하고 그 안에다가 숙박시설을 겸한 유스호스텔이든 이걸 좀 해볼까 해서 도시공사 사장한테 이미 이것에 대해 검토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마무리되면 함께 될 것 같고요.

야구장은 정상적으로 내년 오픈에 맞춰서 준공합니다.

본래는 공기가 좀 부족했는데 계룡건설 컨소시엄에서 굉장히 건축공사를 빠르게 진척해서 지금 공정률보다 상당히 앞서서 내년 정상 오픈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다 보문산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사동 한옥마을도 최소한 6만 평 수준으로 확대해서 본격적인 그림을 도시공사에 그려달라는 지시를 이미 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보물산 프로젝트가 좌초하거나 중간에 주저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단지 여러 가지 절차나 현재 여건에 따라서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모든 사업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것이 현명한 것이고 그것이 어렵다고 해서 후퇴해서 포기하고 이런 일은 없을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개괄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앞으로 걱정 안 하시도록 좀 더 보물산 프로젝트는 가속화 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존경하는 민경배 의원님께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의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질문과 제언에 감사드리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시 연도별 피해 응답률 추이 등 구체적 데이터 공개 제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시·도교육청에서는 효율적인 학교폭력 예방 대응책 수립 지원을 위해 매년 1학기에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 대비 대전의 학교폭력 응답률은 모두 낮은 편이며 2024학년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시에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 가해 응답률, 목격 응답률 추이 등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공개하여 학생, 학부모님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 처리 결과 및 지원 방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피해학생과 학부모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사안의 처리 결과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이후 피해학생의 행정심판 청구로 가해학생의 조치사항이 상향되었고 그에 따라 가해학생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안으로 지난 3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선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대전교육청에서는 당시 사안 발생 학교를 통해 학생 아버지와 통화하여 피해학생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하고 학교 내외에서 상담을 지원하였고 현재 재학 중인 학교에서 학생은 열심히 생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며, 필요한 경우 학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교육청에서도 전문의 및 전문기관 연계 등 학생의 마음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학교에서의 학교폭력 신고와 전담 조사관이 조사하는 과정부터 피해학생 보호 중심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올해부터 시행 중인 피해학생 보호조치 정책의 1학기 시행결과와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전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맞춤형 치유 위탁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8월 15일 기준 66교 91명의 피해학생이 맞춤형 치유 위탁기관에서의 교육 및 상담 등을 진행하였고 마음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전교육청에서는 피해학생 보호조치 및 상담 지원에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센터를 통해 전문의 및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학생이 회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학교폭력 예방정책 수립 시에는 피해 유형별 통계 자료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학교폭력 피해자 중심의 실효성이 있는 다양한 보호대책 마련과 공정한 사안

처리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폭력제로센터 운영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서부교육지원청 학생생활지원센터에 학교폭력제로센터를 설치하고 별도의 전담 업무 담당자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제로센터에서는 학교폭력 사안 접수 및 처리 지원,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운영, 피해학생 법률 지원, 피·가해학생 관계 개선 등 다양한 지원체계를 일원화하여 학교 교육력 회복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대전교육청의 전담 조사관 운영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은 학교폭력 업무 생활지도 및 학생 선도 경력과 사안조사 경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동부교육지원청 21명, 서부교육지원청 27명 총 48명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담당 전담 조사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육지원청별로 월 1회 자체 연수 실시 및 반기별 활동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교육청에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 예방 대책 마련과 사안 발생 초기단계 부터 피해자 보호 중심으로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더욱 힘쓰겠습니다.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질문과 제언을 해주신 박경배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경배 의원님입니다.

더 강조가 됐지요?

존경하는 민경배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